



5일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바이오매스 발전, 미해결 과제는 무엇인가' 세미나에서 토론의 좌장을 맡은 김해동 계명대학교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김수지 기자

바이오매스 발전, 미해결 과제 주제 세미나

“환경 도움 안 돼” vs “보완·개선”

김수진 기후솔루션 연구원
“탄소 중립까지 최소 70년 걸려”

김재식 한국중부발전 사장
“생산·소비, 지속가능한 방법 전환”

재생에너지 '바이오매스' 발전의 현 주소를 다뤄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바이오매스 발전, 미해결 과제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바이오매스의 발전에 대한 갑론을박과 함께 새로운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바이오매스가 실질적으로는 환경에 긍정적이지 않다는 주장과 외려 아직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속가능한 방법을 찾아 그 발전량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공방을 이뤘다.

김수진 기후솔루션 선임연구원은 바이오매스와 관련해 통상적으로 하는 오해가 몇 가지 있다며 서두를 열었다. 그는 '바이오매스가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바이오매스 발전은 실제 이론적으로 석탄보다 더 높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며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이산화탄소의 실질적인 배출량을 0(제로)로 만

드는 '탄소 중립'까지 최소 70년이 걸린다"고 말했다.

이어 "바이오매스 혼소발전의 경우,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 중지가 침해할 발전사업자의 법적 이익이 크지 않다. 이를 고려해 바이오매스의 REC 발급 전면 중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바이오매스 발전의 전 과정에 대한 이산화탄소 평가 기준 도입 등을 통해 기후적 측면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보조금의 자격요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오매스 혼소발전은 석탄 발전에 폐목재 등을 섞어 태우는 방식을 의미한다.

반면 바이오매스 발전이 갖는 아직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 앞으로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재식 한국중부발전 사장은 "바이오매스 발전은 다른 재생에너지원과 달리 화석연료와 같은 방식으로 연소돼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질소산화물이나 먼지 같은 대기오염물질도 배출한다. 이런 특징이 바이오매스에 대한 논쟁을 촉발시키고 있다"면서도 "환경성에 대한 논쟁을 최소화하고 RE100 등 최근의 새로운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바이오매스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과정을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전환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LG 그램 17’ CES 혁신상 2년 연속 수상

LG전자 차별화된 제품 경쟁력 인정

LG전자가 대화면과 초경량을 모두 갖춘 'LG 그램 17'을 앞세워 대화면 노트북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LG전자가 지난해 말 처음 선보인 LG 그램 17은 올해 'LG 그램' 국내 매출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LG 그램 17은 차별화된 제품 경쟁력을 인정받아 'CES 혁신상'을 2019년에 이어 2년 연속 수상했다.

2020년형 LG 그램 17(모델명: 17Z90N)은 초고해상도 WQXGA(2560×1600)를 구현한 17형(43.1cm) 대화면 'IPS 패널'을 탑재했다.

이 제품은 화면부와 조작부를 연결해주는 힌지(접힘) 부위 노출을 최소화하도록 설계해, 2019년형 제품 대비 세로 길이가 3mm 줄었다. 배터리 용량은 기존 72와트시(Wh)에서 80와트시로 키웠으며, 무게는 1350g이다.

이 제품은 키보드의 우측 숫자키 배열을 기존 3열에서 일반 키보드와 동일한 4열로 변경했다. 4열 숫자키 배열은 엑셀업무 등을 할 때 편리하다.



LG 트윈타워에서 모델들이 대화면, 고성능, 휴대성까지 겸비한 2020년형 'LG 그램' 신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LG전자

또한 LG 그램 17은 인텔 10세대 프로세서(아이스레이크)를 탑재했다. 특히 그래픽 성능이 기존 대비 약 2배 향상돼 4K 영상, 사진, 게임 등을 부드럽게 보여준다. 확장 슬롯을 이용해 저장장치(SSD)와 메모리(RAM) 업그레이드도 가능하다. 이 제품은 미국 국방성 신뢰성 테스트의 7개 항목(충격, 먼지, 고온, 저온, 진동, 염수, 저압)을 통과해 내구성도 우수하다.

LG전자는 LG 그램 17을 포함한 LG 그램 신제품(모델명: 15Z90N, 14Z90N) 예약판매를 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진행한다. /구서윤 기자

카카오-대한항공 MOU

“항공권 결제·탑승 등 모바일 혁신”

결제·탑승 전 과정 모바일 최적화
카카오 AI 활용 효율성·생산성 ↑
새로운 가치 창출 위해 긴밀히 협력

카카오와 대한항공이 고객 경험 혁신을 위해 손을 잡았다.

양사는 5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카카오 판교오피스에서 카카오 여민수 공동대표, 배재현 부사장과 대한항공 우기홍 대표, 하은용 부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플랫폼 ▲멤버십 및 핀테크 ▲커머스 ▲콘텐츠 ▲디지털 전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각자가 보유한 역량을 활용해 이용자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데 협력할 계획이다.

이번 업무 협약을 바탕으로 양사는 항공권을 찾는 과정에서부터 결제, 탑승에 이르는 전 과정이 모바일 환경에서 더욱 편리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카카오 공동체가 보유한 막강한 콘텐츠를 대한항공 기내에서도 즐길 수 있도록 인플라이트 엔터테인먼트 사업 협력을 추진하고, 커머스 플랫폼 협업 및 양사가 보유한 상품의 판매 확



카카오와 대한항공이 고객 가치 혁신 및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협력 MOU를 체결했다. (왼쪽부터)대한항공 하은용 부사장, 대한항공 우기홍 대표이사, 카카오 여민수 공동대표, 카카오 배재현 부사장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카카오

대를 위한 상호 협력 등 구체적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 밖에 카카오의 고도화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항공 산업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는 "각자의 영역에서 최고 수준의 역량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양사가 협력을 약속한 만큼, 이용자들에게 더 편리하고 혁신적인 항공·여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항공 서비스

분야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 대한항공과 긴밀하게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기홍 대한항공 대표이사는 "카카오와의 제휴를 기반으로 카카오의 우수한 플랫폼과 콘텐츠를 대한항공의 고객 서비스, 항공권 판매, 핀테크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해 고객 가치를 높일 예정"이라며 "항공사와 ICT 기업의 사업 협력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정의선, '2019 자동차인' 혁신상 수상... 조직·기업문화 선도

〈현대그룹 수석부회장〉

48개 회원사 기자 부문별 후보추천
미래기술 개발·글로벌 인재 영입 성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이 한국자동차기자협회의 '2019 자동차인' 산업부문 혁신상을 수상했다.

5일 한국자동차기자협회에 따르면 '2019 자동차인' 상은 올 한 해 동안 산업 및 홍보분야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자동차 산업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큰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해 시상하는 것으로, 올해 신설됐다.

'2019 자동차인' 상은 ▲산업부문 혁신상 ▲산업부문 공로상 ▲산업부문 특별상 ▲홍보부문(인하우스/홍보대행사) 등 총 5개 부문으로 구성되며, 한국자동차기자협회 48개 회원사 소속 기자들로부터 각 부문별 후보를 추천 받은 뒤, 최종 후보를 대상으로 한국자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

동차기자협회 이사회 및 확대임원회의에서 수상자를 선정한다.

올해 산업부문 혁신상 수상자로 선정된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은 수소연료전지차, 자율주행기술 등 혁신적인 미래 자동차 기술과 디자인 분야에 지속적인 투자를 기울이는 한편, 글로벌 인재를 영입하고, 조직 및 기업 문화 혁신을 이끄는 등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산업부

문 혁신상을 수상하게 됐다.

2019 자동차인 산업부문 특별상은 쌍용자동차 노사에게 돌아갔다. 쌍용차는 어려운 경영 여건속에서도 노사가 힘을 합쳐 체질 개선과 선제적인 자구 노력을 기울여왔고, 특히 노사간에 인내하고 상호 노력하여 지난한 과정 끝에 해고자 전원 복직을 이뤄냈다. 또한 노사가 재기의 도약을 위해 품질 혁신 노사 공동 TFT를 발족하는 등 공동의 노력을 기울인 점이 인정됐다.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산업부문 공로상을 받았다. 정 회장은 매일 자동차산업포럼을 개최해 환경, 안전 규제 등 자동차 업계의 현안을 주제로 대화와 토론의 장을 이끌고, 포럼의 결과를 실제 정부에 건의하는 등 자동차 산업 발전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양성운 기자 ysw@

SKT, 동반위와 '임금격차 해소협약' ... 협력사에 7543억 지원

‘뉴 ICT 프라이드 어워즈’ 개최

SK텔레콤은 서울 광진구 그랜드 위커히 호텔에서 우수비즈니스파트너사와 함께 하는 '뉴 ICT 프라이드 어워즈'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SK텔레콤은 동반성장위원회와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협약'을 체결하고 3년간 총 7543억원 규모를 지원키로 했다.

'뉴 ICT 프라이드 어워즈'는 SK텔레콤이 우수 파트너사와 한 해의 성과 및 내년 방향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이

다. 2006년부터 14년째 이어져오고 있는 이 행사는 올해 '파트너스데이'라는 기존 명칭에서 '뉴 ICT 프라이드 어워즈'로 변경됐다. 초대 대상도 SK텔레콤 파트너사에서 SK ICT패밀리사의 파트너사로 확대했다.

SK텔레콤은 인프라, IoT, AI, 미디어, 보안, 커머스 등 SK ICT패밀리사의 주요 사업 영역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낸 총 38개 우수 파트너사에 인증패와 포상을 전달했다. 해당 파트너사에는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연

수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우수 파트너사에는 SK텔레콤과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함께 이뤄낸 주역인 5G 분야 파트너사가 대거 포함됐다.

이와 함께 SK텔레콤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3년간 총 7543억원 규모의 다양한 상생협력 프로그램도 운영하기로 했다. 지원 프로그램은 임금 및 복리후생 지원, 기술 경쟁력 강화 지원, 교육 및 컨설팅 지원, 금융지원(동반성장펀드, 경영안정자금) 등을 아우른다. /김나인 기자 skni@